

견관절 외상성 초기 전방 탈구 대 재발성 전방 탈구 Traumatic Initial Versus Recurrent Anterior Dislocation in Shoulder

가천의대 길병원 정형외과학교실

김영규 · 최광운

서 론

최근 일부 학자들은 활동성이 많은 젊은 층이나 운동 선수에서 발생한 견관절의 외상성 초기 전방 탈구의 치료로 관절경적 안정화 술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논란이 많다. 이에 저자들은 외상성 초기 전방 탈구와 재발성 탈구에서의 관절경적 소견 및 Bankart 복원술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관절경하에서 봉합 나사못을 이용하여 Bankart 복원술을 시행한 견관절의 외상성 초기 전방 탈구 16예 및 재발성 탈구 44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Bankart 병변이 없거나 초기 탈구시 대 결절부 골절을 동반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초기 탈구군은 평균 23개월(12~47개월), 재발성 탈구군은 평균 26개월(14~51개월) 추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초기 탈구군은 22세(15~27세), 재발성 탈구군은 24세(16~38세)였으며 재발성 탈구군의 초기 탈구시 평균 연령은 20세(9~34세)였다. 초기 탈구군은 운동 선수 11예, 군인 1예, 비운동 선수 4예였다. 관절경상 Bankart 병변 및 주변 조직을 비교하였으며 수술 후 견관절의 기능적 평가는 Rowe rating scale을 이용하였다.

결 과

관절경 소견상 초기 탈구에서의 Bankart 병변은 튼튼하고(robust), 탄력적이고, 후퇴가 없으며(unretracted) 주변 관절낭 인대는 출혈성 또는 헤모시데린 침착이 관찰된 반면, 재발성 탈구에서는 Bankart 병변이 혈류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다소 창백하고, 탄력적이지 못하고, 세동이 있고(fibrillated), 전위가 많았으며 박리된 부위에 활액막의 육아조직이 차있어 유착 현상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관절낭 인대는 다소 이완되어 있고 전방 관절와 연에 세동이나 결손이 있는 경우가 종종 관찰되었다. Hill-Sachs 병변은 초기 탈구군에서 9예(56%), 재발성 탈구군에서 43예(98%)에서 관찰되었다. Rowe scoring scale에 따른 수술 후 결과는 초기 탈구군에서는 평균 95점으로 15예(94%)에서 양호 이상, 1예(6%)에서 보통의 결과를 보였으며, 재발성 탈구군에서는 평균 91점으로 우수 31예(70%), 양호 8예(18%), 보통 3예(7%), 불량 2예(5%)로 88%에서 양호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초기 탈구군의 경우 재탈구는 없었으며 1예(6%)에서만 불안감을 보였고, 재발성 탈구군의 경우 재탈구 1예(2.3%), 아탈구 1예(2.3%), 불안감 2예(4.5%)를 보여 총 4예(9%)에서 불안정성을 보였다. 수상 전 운동 능력이나 활동력으로 거의 복구된 경우가 초기 탈구군에서는 14예(88%), 재발성 탈구군에서는 37예(84%)였다.

결 론

초기 탈구에서 발생한 Bankart 병변이 술기상으로 보다 쉽게 복원될 수 있으며 치유도 잘 되어 재발율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재발성 탈구시 Bankart 병변의 전위 및 유착, 관절낭 인대의 이완 등으로 인해 술기상 주의를 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층이나 운동 선수에서는 문헌상에서 보고되고 있는 초기 탈구 후의 높은 재발율을 고려하여 초기 탈구 발생시 조기 안정화 술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